권두언

긴 안목이 필요하다

지 설 하
(국립종축원장)

우리나라 양돈업은 지난'66년도에 140만두에서 '86년도에 약300만두의 수준으로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 부업 양돈에서 전기업 양돈으로 그 사육규모가 커지고 있어 예전과는 달리 시설도 좋아지고 사양기술도 많이 향상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돈업은 돼지수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불안정하고, 우량 종돈의 확보가 미흡하며, 양돈경영 기술도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 부족하여 생산성이 선진외국에 비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통체계의 비능률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양돈업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면문제 해결과 더불어 긴 안목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조절기구로 생산자 단체의 육성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돼지의 과잉생산에 따른 불황이 올 때마다 정부에서 앞장서서 돼지의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와 돼지의 원천적 생산조절을 위한 모돈의 감축유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추진 한다든지 시장에 개입하여 돼지의 수매 비축과 과소 생산시 비축돈을 방출하므로서 돼지값 안정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지난'79년의 극심한 양돈 불황후 경기가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지난 몇년간 호황세를 누려온 양돈 농가들은 돼지값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최근 사육 의욕이 어느때보다 높아져 사육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소, 닭 사육 농가가 양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후보돈과 모돈을 확대하는 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또 한차례의 양돈 불황이 우려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같이 주기적으로 오는 양돈업의 파동을 막는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생산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양돈경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돼지가격의 진폭을 줄이고 생산자들로 하여금 시장 수요에 알맞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을 조절하는데 있다. 이제 우리나라 양돈업도 상업적인 전문화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생산자 단체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단기의 축산물 수급계획과 함께 단기적으로 가격의 주기적 변동

에 대처하기 위한 관측사업을 강화하고 그 관측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지도하므로 양축농가 스스로 생산자 단체를 통해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접적 지원에 그치고 축협, 양돈협회, 양돈조합 등의 단체를 구심점으로 하여 생산조절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권한을 주어 수행토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축산물의 생산조절을 정부주도에서 점진적으로 생산자 단체 즉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육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종돈의 능력개량과 양돈경영 기술향상으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축산물 가격이 국제경쟁력에 비하여 높을 뿐만 아니라 질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축의 능력, 사료의 질과 가격, 질병위생대책, 경영기술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될 것이다.

우선 양돈업의 기본이 되는 종돈개량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가축개량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돈의 등록과 검정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므로서만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종축등록 사업은 종축의 혈통을 보존하고 이용상 경제형질의 대상이되는 체형, 자질능력, 번식성적에 이르기까지 기록 보존하여 우량축을 생산하기 위한 교배, 선발 도태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계획교배에 의한 우량축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돼지의 유전적 개량을 도모하는데는 능력검정이 중추역할을 하는데, '83년도에 설치한 양돈협회의 공인 종돈 능력검정소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 종돈장의 능력검정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이 따라야 하겠다. 한편 개개 양돈가는 우량한 종돈을 확보하고 교잡돈을 사육하여 산육능력의 향상과 육질 개선을 기하고 철저한 방역위생 대책과 사양관리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두당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특히 양돈업에 있어 질병은 생산성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최근에는 듣지 못하던 질병이 발생하는 등 돼지질병의 다양화, 고질화의 경향이 있다.

현재 양돈에서 돼지전염병은 개인의 힘으로 막기란 거의 불가능해 졌으므로 생산자 단체에서 공동예방 및 방제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관리의 성역화, 사육규모의 적정화, 자급사료 개발활용 노력으로 사료비를 절감하는 등 경영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국제경쟁력이란 외국의 상품과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힘을 말한다. 머지않아 외국의 축산물 수입개방이 될것에 대비하여 우리 축산인 모두는 협력하여야 할때라고 믿고 있다.

세째, 양돈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기존 도축장시설의 과감한 통폐합과 시설근대화가 요구되며 도매시장은 공영화 체제로 하여 확충시킴으로써 공정거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매기능은 물론 수매비축도 생산자 단체가 가져야 될것이며 그렇지 않고는 중간 상인들의 마진 취득 노력으로 부터 생산자 자신들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돼지생산이 과잉될때는 수출을 시도하여야 하며 육가공 개발로 햄, 베이컨 등 고급육으로 만들어 소비를 늘리도록 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과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긴 안목에서 더욱 연구개선해 나가야 겠으며 전 양돈인의 주체의식과 단합된 노력이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